

## 지부 순례

집단 보건관리의 시범지역

# 경남지부를 찾아서

- 소재지 : 경남마산시양덕동 974 (수출자유지역내) 전화 : 55-2677/2965
- 지부장 : 현원일    ○ 사무국장 : 임성빈
- 상임부지부장 겸 센타소장 : 김영희

경남지부는 1970년 부산경남지부에서 독립·발족하였으며,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어 입주업체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진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재정지원 및 건물임대) 하에 1972년 4월 10일 마산근로자복지의원이 개설되고, 이를 모체로 일본

국제기술협력사업단(JICA)의 기차재 지원과 입주업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1973년 7월 29일 마산산업보건센타가 출범하게 되었다.

1973년 11월 4일 정부(노동부)는 마산수출자유지역내에서는 사업주가 마산산업보건센타에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위촉하



← 자동혈구 및 혈색소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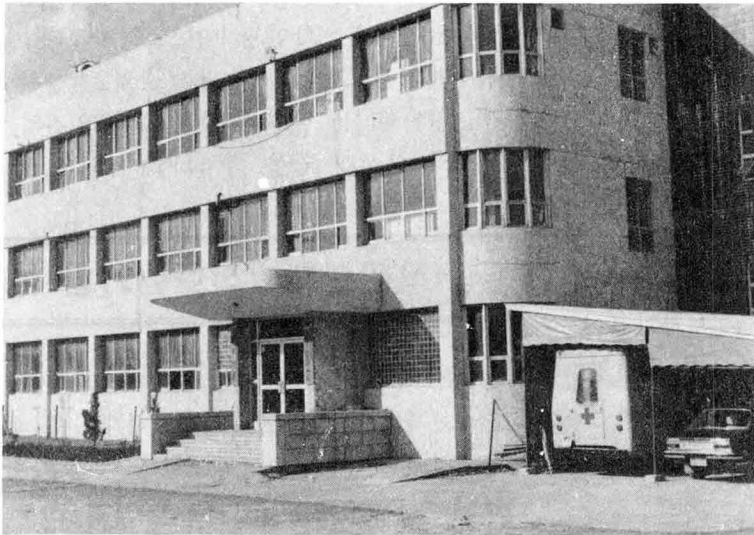


→ 병리 검사실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직업병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영양조치를 취하게 한다.

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마산센타를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 간주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지역내에서의 집단보건관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되어 정부는 1983년 4월 19일자로 마산센타를 집단보건관리시범운용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와같은 집단보건관리는 전문기관이 공단내의 사업장보건관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룰수 있고, 한정된 시설과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을뿐 아니라 기업측에는 비용의 절감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이라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여 이상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는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지고 있다.



마산산업보건센타 전경 슸

1973. 5.19 정부(상공부)에서 제공한 이 건물은 지상3층 연건평 250 평으로서 각종장비를 갖추고 의사 3인을 비롯하여 34명의 전문인력이 공단내 집단 보건관리 업무와 환자진료에 헌신하고 있다.

## 84 사 업 실 적

사 업 명	공단지역내	공단지역외	계
1. 근로자 보건 관리	사업장		사업장
작업 환경 측정	74	231	305
특수 건강 진단	4,469 건	8,349	12,818 건
일반 건강 진단	21,638 명	7,786	29,424 건
채용 건강 진단	12,701 명	—	12,701 명
2. 방	317 회	—	317 회
3. 진	20,284 건	—	20,284 건